



88120163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13 November 2012 (morning)
Mardi 13 novembre 2012 (matin)
Martes 13 de noviembre de 2012 (mañana)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5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5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5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길조는 까치이다. 요즈음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새로서 우리의 통념 속에 길조로 깊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구적 통념이 우리의 의식에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5 선배는 우연히 비둘기의 생리와 까치의 생리를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선배가 한동안 거주하게 된 일본식의 가옥에는 뜰에 비둘기 집이 있어 늘 한 무더기의 비둘기들이 땅에 내려 앉아 있곤 했는데 콩을 던져 주면 늘 꾸르륵거리며 싸울 뿐만 아니라 수놈들은 늘 암놈을 차지하기에 몰두하여 싸움을 일삼는다고 했다. 선배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비둘기는

10 욕심 많고 싸움과 분열을 일삼는 새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에는 제법 오래된 나무들이 높이 자라 있었고 그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 한 쌍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쳤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끼가 첫 번째 나는 연습을 하던 중 날개 힘이 약해 나무 밑에 내려앉게 되었다. 주인집 아저씨는 그 새끼를 모자에 담아 옮기려 하였다. 그때였다고 한다. 어미 까치가 다급히 울음을 울어 대자 어디에서 모여드는지 평소에는 그렇게

15 귀하던 까치들이 새까맣게 몰려들더니 주인집 아저씨에게 달려들더라는 것이다. 마치 폭격하는 전투기처럼 주인 아저씨는 혼비백산하여 한 걸음도 앞으로 옮길 수가 없었고 끝내 새끼 까치를 날려보내야 했다. 새끼를 놓아 주자 까치들은 그 새끼를 둥그렇게 둘러싼 채 날아 올랐고 새끼가 둥지에 안착하자 뿔뿔이 흩어져 가다.

선배는 우리가 바로 까치라고 했다. 까치가 자신이 비둘기라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많은 없는 것이라고, 진실에 대한 질문이 존재하는 한 어느 날인가 우리가 까치가 되어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20 근래에 까치로서의 우리 본연의 모습을 언뜻 보았었다. 어린 한 생명을 위해 새까맣게 몰려들어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그리고 함께 날아오르는 까치의 모습을…….

나는 너희들이 늘 진실에 대한 질문으로 깨어 있기를 바란다. 그러한 깨어

25 있음만이 우리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진실을 통해 하나가 되고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게 할 것이다. 지금은 이 모든 진실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는 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스럽게 그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어느 교사라는 이름 없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 너희에게 이렇게 진실이 숨겨져 있음을 말하고자 했고, 이 숨겨진 진실에 대한 질문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임을 말하고자 했다.

아이들아, 우리들이 까치가 되어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오를 그 날은 언제일까? 하늘

30 높이 지우고 간 발자국들이 무지개로 솟아오를 날은 언제일까? 너희들이 각자의 좁은 경험의 폭과 생각의 틀을 넘어서 진실에 대한 질문을 늘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그 날은 조금씩 가까워질 것이다. 도시에서만 자랐고 도시에서만 살 것이라고 해서 도시적인 삶에만 묶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삶을 우리 사회 전체 속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35 까치가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까치는 함께 날아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김진경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1988)

- 이 글의 제재를 내용상 단락으로 나누고, 그 구성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 이 글의 어조와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 글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2.

들길에 서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 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하고 산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나.

5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짙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不絶)히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니……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나.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이거니……

신석정 <문장> 5호 (1936)

- 이 시의 구성적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 이 시에서 나타난 제재와 화자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이 시에서 나타난 대표적 수사법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어떠한가?